

‘중·대형 배터리’ 기술개발 집중 차별화 솔루션으로 경쟁력 강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대형 배터리에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매진 중이다. 소형전지 보다는 대형전지로 돈을 번다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사들이 중·대형 배터리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각 사는 개발 철학과 전략에 따라서 원형·각형·파우치 등 셀 형태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대형 배터리는 전기차 및 전력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탑재된다.

특히 삼성SDI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배터리 제품 부문 수익성을 통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1분기 사업부별 실적을 보면 전지 부문 매출은 4조58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4.7%다.

프리미엄 차량에 탑재되는 5세대 각형 배터리 ‘P5’의 견조한 판매와 미주향 ‘P6’의 공급 개시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수익 인식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는 주력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90%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소형전지 가동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SDI는 올해에도 중대형전지에 투자를 집중할 전망이다. 삼성SDI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스텔란티스와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며,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과 제너럴모터스(GM) 합작공장 건설도 예정돼 있다. 투자규모는 5~6조원대의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 (CAPEX)는 4조3447억원이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SDI 연구소 전경.

/삼성SDI

韓 배터리업계, 수익성 확보 전략
삼성SDI, 중대형 배터리로 견조 실적
5~6조 규모 합작공장도 건설 예정

LG엔솔, LFP 롱셀 기반 ESS 신제품
편의성·화재방지 적용 안정성 강화

SK온, GV90 배터리 공급 흑자 기대
울산공장·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급

이 올해 첫 해외 현장경영으로 삼성SDI 말레이시아 사업장을 찾아 ‘담대한 투자’를 주문한 만큼 대규모 투자 증액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6월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LFP 롱셀 기반 전력망 ESS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고용량 LFP 롱셀 ‘JF2 셀’을 활용한 신제품 ‘New Modularized Solutions’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해당 제품은 모듈형 컨테이너 타입으로 용도에 맞게 용량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모두 조립된 완성형으로 고객에게 전달돼 편의성을 한층 높였으며, 화재 방지 솔루션을 적용해 제품의 안전성도 한층 강화했다.

SK온은 파우치형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제네시스의 첫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 공급하며 흑자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온의 GV90 배터리는 현대차 울산 공장과 오는 4분기 가동할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하이브리드카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회사는 포드와 총 연 127GWh(기가와트시) 규모의 합작 공장 건설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GV90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을 계기로 현대차와의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배터리 기술이 상향 평준화돼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를 이루기 어렵다”라며 “시스템 단위의 차별화된 배터리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 ‘현대셀렉션’ 리뉴얼 앱 출시

앱 인터페이스·구독 요금제 개편

현대자동차가 모빌리티 구독 플랫폼 ‘현대셀렉션’을 전면 개편해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셀렉션은 고객이 모바일 앱에서 현대차의 다양한 차량을 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원하는 만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대차는 이번 리뉴얼 앱 출시를 통해 기존 대비 대여 가능한 차종 및 트림을 늘리고 앱 인터페이스와 구독 요금제를 전면 개편했다. 아이오닉5 N, 디올뉴 싼타페, 더뉴 투싼을 신규 추가해 총 20개 차종을 운영하고 차종당 1개씩 운영하던 트림을 최대 4개까지 늘렸다.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필터 기능과 이용 목적에 맞는 차종을 제안하는 추천 차량 기능도 추가했다.



‘현대셀렉션’ 리뉴얼 앱 출시.

경차, 소형차, 준중형차 등 차급 단위로 책정되던 기존 구독 요금은 고객이 대여하는 차종 및 트림 단위로 책정되도록 개편했다.

기존에 적립만 가능했던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구독료를 결제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현대 페이도 사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미래에너지 성장전략 모색 “비즈니스 실행력 높일 것”

SK이노베이션 美 글로벌포럼 개최
배터리·핵심 사업 등 성장전략 논의
미래 에너지 선도 글로벌 인재 발굴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들과 만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SK이노베이션 글로벌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21년부터 SK이노베이션 계열 전략 실행에 힘을 더해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해외 우수 인재와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포럼에서는 ▲이차전지 ▲배터리 열폭주 방지 기술 ▲지질 산업 및 기술(Geo Biz & Tech) ▲탄소 소재(Carbon Materials)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등 5개 세션을 열고 미래 에너지 전략과 배터리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한다. 각 세션은 논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그룹토의, 전문가 주제발표 등 각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2023년 글로벌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시스

SK이노베이션은 이 자리에서 미래 에너지 사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도 직접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시행한 글로벌포럼에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 재직자, 우수 대학 석학 등 우수한 인재 풀을 확보해 네트워킹을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글로벌 포럼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 동향과 기술을 공유하는 대표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포럼의 노하우와 성과를 축적해 배터리, 해외자원개발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핵심 비즈니스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LGU+,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DX 솔루션

지능형 CCTV·진동센서 등 4종 적용

LG유플러스는 충청남도 태안군 ‘국제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스마트 관제 DX(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능형 CCTV, 실시간 관제 IoT(사물인터넷), 진동센서, 통합관제 모니터링 등 DX 관제 솔루션 4종을 육양국에 적용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DX 솔루션을 도입하는 태안군 육양국은 현재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데이터코로싱이 운영 중이다.

육양국은 해저 광케이블을 육지에 설치된 통신망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환기 등 접속설비를 갖춘 통신 국사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육양국은 바다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통신 국사 대비 온도와 습도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접 국가 및 한반도에 일어나는 지진에도 영향을 확률이 높다.

LG유플러스는 온도·습도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외부인 침입 및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보유한 ‘DX 관제 솔루션’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외부인 출입과 화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를 육양국 내외부에 설치했다. 지능형 CCTV는 FHD 고화질로 실시간 녹화가 가능해 시설물의 상황을 선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사람, 동물, 그림자, 카메라 흔들림 등을 스



LG유플러스 직원이 ‘DX 관제 솔루션’을 관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로 구분할 수 있어 이상 상황 발생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배전반 온도 관리, 발전기 연료 모니터링 등 시설 관리 업무도 실시간 원격 관제 IoT를 도입해 디지털 전환했다.

LG유플러스는 CCTV, IoT 기기 등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에도 AI 기술을 확대 적용해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사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안형균 LG유플러스 기업영업2그룹장(상무)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안전과 운영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관제 솔루션 구축을 발판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 관제 솔루션을 적용, 고객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돕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삼남석화 친환경 소재 경쟁력 확보

삼남석유화학이 국내 TPA(Terephthalic Acid, 테레프탈산) 생산업체 중 처음으로 국제 친환경 인증 ‘ISCC PLUS’를 획득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삼양그룹의 화학 계열사 삼남석유화학은 TPA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QTA(Qualified Terephthalic Acid)가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PLUS’ 인증을 최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ISCC는 석유화학 원료를 배제하고 친환경 바이오 원료나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및 잔류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제품과 유럽연합(EU)의 신재생에너지 지침(RED II, Renewable Energy Directives)에 부합하는 연료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국제 인증제도이다.

/차현정 기자